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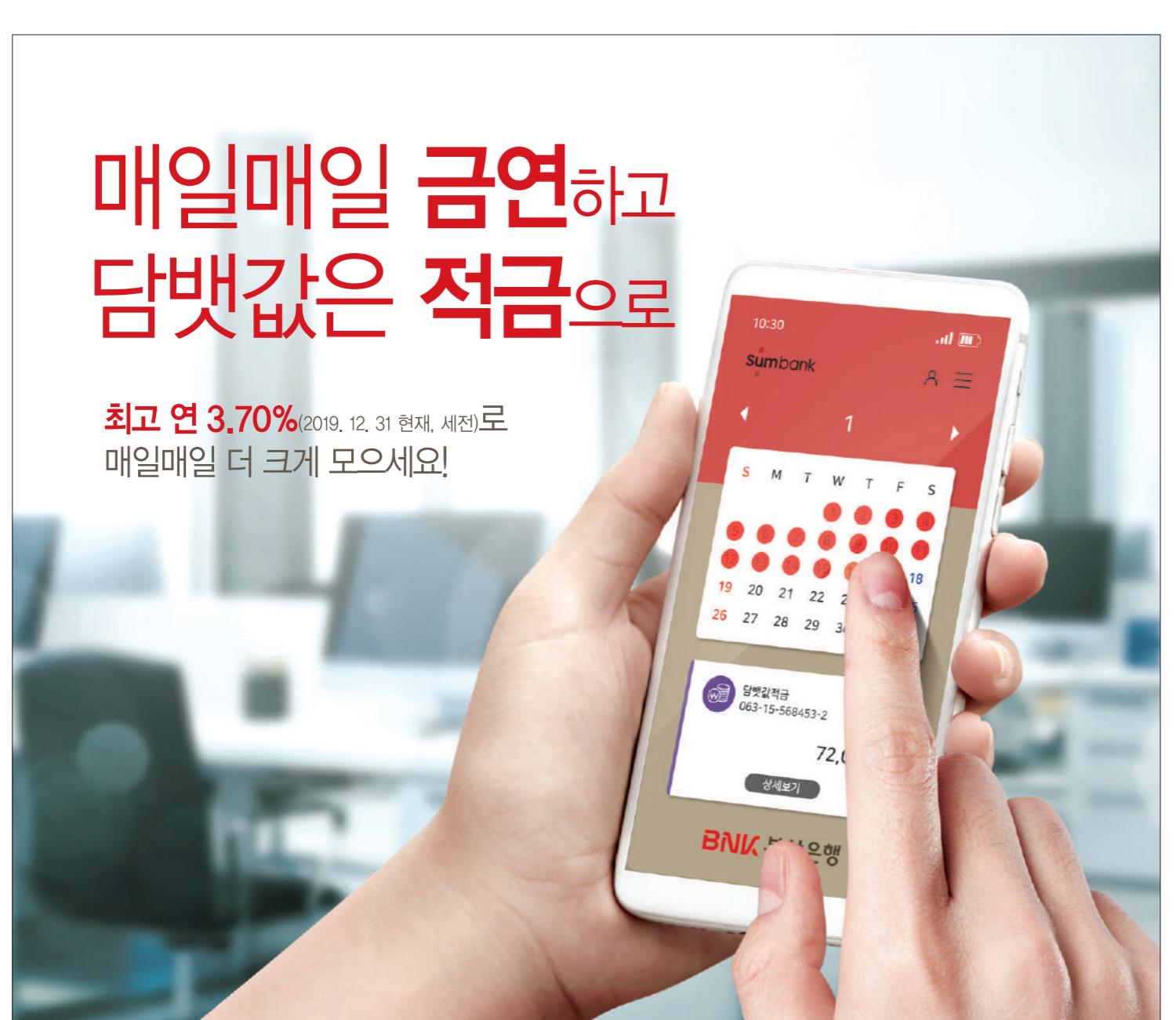
부산은행 이야기

BNK STORY

FEBRUARY 2020 Vol.610

매일매일 금연하고 담뱃값은 적금으로

최고 연 3.70%_(2019. 12. 31 현재, 세전)로
매일매일 더 크게 모으세요!



부산은행 담뱃값적금

적용이율

• 썸뱅크
최저 연 1.50% ~ 최고 연 3.70%

• 은행창구
최저 연 1.50% ~ 최고 연 2.00%

※ 1년제 기준,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모두 적용 시(2019.12.31 현재, 세전)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참조 하시거나, 부산은행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은행

BNK 부산은행

부산은행 이야기

2020. 2. Vol.610

BNK
부산은행

Special Essay

워라밸, 환상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공감공유

워라밸을 보는 세 가지 시선

감성충만

아브람체보의 동화
기생충 & 플로리다 프로젝트

동반성장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산은행 이야기

February 2020 Vol.610

BNK STORY



CONTENTS

공

공감공유

- 04
스페셜 에세이
워라밸, 환상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 06
스페셜 스토리 1
워라밸을 보는 세 가지 시선
- 08
스페셜 스토리 2
삶의 철학이 녹아든 일 그리고 여가
- 10
스페셜 스토리 3
부산은행 워라밸 실천 보고서
- 12
스페셜 플레이스
일·삶 균형을 위한 퍼즐 조각 찾기

발행일 2020년 2월 13일

부산은행 행보는 부산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월간·비매품(정보간행물, 부산남, 라00007)

주 소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부산은행 본점)
T.051-620-3833

발행인 빙대인
편집인 곽태길
기획·편집 김기창 정봉경
디자인·인쇄 효민디앤피 T.051-807-5100

감

감성충만

- 16
인생은 예술
디자이너 장광효
- 20
여행생활자의 이곳
모스크바에 간다면 아브람체보,
아브람체보의 동화
- 24
아트 IN 옥션
이중섭의 '돌아오지 않는 강'
- 28
21세기 영화 산책
기생충 & 플로리다 프로젝트
- 32
시간을 걷다
부산 고유의 문화를 꽂피우다,
알티비피 얼라이언스

동

동반성장

- 34
똑똑한 재테크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36
재테크 상담소
밀레니얼 세대의 신개념 투자,
스니커테크
- 38
미래금융백서
기계들의 금융 전쟁
고빈도 거래(HFT)
- 40
경제의 속살
중국은 글로벌 패권을
넘볼 수 있을까?

행

행복미래

- 42
공감+
BNK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 44
진심은 통한다
CS 대상 수상자
본점 영업부 이은주 대리
- 46
BNK News
부산은행 뉴스
- 50
독자와 함께
부산은행 이야기 1월호를 읽고
- 51
라이프+
문화, 공연, 전시 안내



<부산은행 이야기>는 FSC(국제삼림관리협의회)가 인증한 친환경 용지에 ASA(미국대우협회)가 인증한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이용해 인쇄합니다.

워라밸

Work

Life

Balance

환상과 실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최근 워라밸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 워라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워라밸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라서 방황 중인 사람들이 많다. 퇴근 후에 학원에 가서 외국어 공부하고,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콘서트도 관람하는 것이 워라밸인가? 아니면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 워라밸인가? 일을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이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알아서 야근을 택하기도 한다.

Work

Life

Balance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줄곧 TV만 보고 있다면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쉼도 중요하지만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도 필요하다. 모든 직장이 개인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너무 환상적인 워라밸 사례만 부려워해서도 안 될 일이다. 회사 내에서도 보람을 찾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사 밖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워라밸일 것이다.



워라밸을 보는

Work & Life Balance

세 가지 시선

워라밸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일부 기성세대에 대한 경제학자의 조언, 워라밸 이전에 먼저 돈과 일에 대한 철학이 중요하다는 의견,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하는 시간에서 먼저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 워라밸에 대한 세 가지 시선을 소개한다.

일하러 왔지만 일만 하고 살 순 없다

①

기성세대는 “워라밸을 다 따지면서 어떻게 회사의 성과를 올릴 수 있나”고 묻는다. 이에 대해 ‘웰빙 경제학’ 분야를 개척하며 주목받고 있는 경제학자 얀 에마뉘엘 드느브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일과 삶의 균형이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구성원의 행복이 조직의 성과를 높인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 자체에서 행복을 찾고 온전히 일에 몰입하는 직원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이처럼 직원 대부분이 일과 삶을 ‘연속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업 관리 전반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워라밸에 대한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기업의 역량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일터에서 불행했던 직원이 행복을 찾으면 생산성이 13% 높아진다는 것이 그의 연구결과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첫째·둘째 주 화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 배로 연장하는 ‘더블런치타임’을 도입한다든지, 여유로운 저녁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워라밸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드느브 교수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과 ‘돈’에 얹매이지 말라

②

유브갓피처스의 전병주 대표는 그의 저서 <행복한 나라에서 살면 나도 행복할까?>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을 평가할 순 없다고 말한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 대학을 자퇴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는 ‘알레한드로’라는 청년. 그가 찬 손목시계에는 시침과 분침 없이 스페인어로 ‘바로 지금’을 뜻하는 ‘Ya’라는 단어만 쓰여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실 때는 단순히 목으로 삼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커피의 향을 오롯이 음미하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자연의 에너지, 농부의 열정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이 순간’의 행동과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텔 매니저 ‘에밀리아’는 “일하면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역시 삶의 일부예요. 모든 경험에는 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의식주

만 충족된다면 그 외에 돈이나 좋은 집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코스타리카 사람들은 ‘일’과 ‘돈’에 얹매여 있지 않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워라밸을 잘 쟁겨주는 직장에 들어갔다 해도 기본적으로 일과 소득에 대한 개인의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행복해질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더불어 ‘바로 이 순간’의 행복을 쟁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워라밸로 가는 길의 시작이 아닐까.

복잡함을 제거하고 단순하게 일하라

③

회사에서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정리했다고 하여 화제가 된 책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박소연은 워라밸에 대한 독특한 역발상을 제시한다. 퇴근 후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계획만큼이나, 퇴근 전의 시간을 제대로 똑똑하게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만의 상황판 만들기’다. 업무에서 자신이 속한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만들어야 할 상황판은 두 개다. 첫째, 주요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진행과 완료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판, 둘째, 연초에 세운 사업목표에 맞춰 실적을 누적해 나가는 상황판이다. 이러면 불안한 마음을 덜고 불필요한 업무도 줄일 수 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상사를 불안하게 만드는 힘들었던 상황들을 먼저 구구절절 얘기하기 시작하면 상사의 화만 돋우기 쉽다. 일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먼저 보고한 후 자신의 성과를 어필해야 ‘일 잘하는 사원’으로 칭찬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복잡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의사소통에서도 핵심만 잘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일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보자.



삶의 철학이 녹아든 일 그리고 여가

퇴근 후 배움을 즐기는 ‘퇴류단트’, 출장 중에 여가를 보내는 ‘블레저’ 등은 워라밸 문화가 확산하면서 생긴 신조어들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의 워라밸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본다.

사옥에 담긴 워라밸 철학

세계적 IT 기업 ‘애플’의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프로젝트인 ‘애플파크’는 독특한 원형 형태의 건물이다. 특히 원의 중심부는 녹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전체 사옥 부지의 80%에 달한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은 모두 지하에 조성해 건축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스티브 잡스는 사무실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공간이 되기를 희망했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의 사옥에도 사무실 면적보다 큰 대규모 녹지가 조성되어, 직원들에게 몸과 마음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애플파크 전경



다양한 복지와 수평적 시스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특별한 복지 정책을 가진 회사로 ‘스포티파이(Spotify)’가 있다. 스포티파이는 유럽·북미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음원 스트리밍 회사로,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직원 복지는 북유럽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원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휴가를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전액 유지된다. 고령·난임으로 자녀 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냉동 난자 시술, 인공 수정 비용을 지급하며, 반려동물의 건강 보험까지 지원한다. 스포티파이의 업무 시스템은 매우 수평적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스쿼드(Squad: 조)’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업무는 분담되어 있지만 리더가 없어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는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가장 높은 담당자에게 의사 결정권이 주어질 뿐이다.

모두가 ‘워킹맘’인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19년 OECD가 조사한 워라밸 지수 조사에서 40개국(일부 非 OECD 회원국 포함)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인 37위를 기록했다.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네덜란드에서 워라밸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다. 복지 혜택, 승진 등에서 전일제·시간제 일자리의 차별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육아 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선택한다. 전체 근로자 중 약 37%가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도 독특하다.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 후 육아 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일 또는 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다. 네덜란드에는 ‘워킹맘’이라는 단어가 없다.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잘 뒷받침되고 있어, 대부분의 기혼 여성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기업들은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갖추고 있다. 근무 시간을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이는 매우 보편적이다. 네덜란드인들의 행복에 대한 기준은 각자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뚜렷한 목적 없이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도 않으며,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을 좋아하는 것과 그 일이 생활 자체가 되는 건 다르다. 네덜란드인들의 일에 대한 철학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본다.

부산은행

워라밸 실천 보고서

직원 만족이 곧 고객 만족으로

부산은행이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 GPTW(Great Place To Work)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10년 연속 선정되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은행의 워라밸 실천 현장 속으로.

안팎으로 워라밸 리더 인증

부산은행은 반세기가 넘는 역사 동안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믿음을 토대로 직원 복지 실현에 앞장서왔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GPTW 주관 2015~2019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5년 연속 선정되며 글로벌 수준의 워라밸 구현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해 11월 부산광역시 주최 경진대회에서 빈대인 은행장은 ‘워라밸 최고경영자(CEO)’로 선정되기도 했다. 워라밸 문화 정착을 활성화하고자 부산시가 개최한 행사에서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부산은행의 가치관이 모범사례로서 인정받았다. 여기에 작년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기업’ 인증까지 받았다. 은행권 최초로 근로자가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 활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널리 위상을 떨친 것이다.



사내 문화로 자리 잡은 워라밸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부산은행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오후 6시 이후 ‘PC 셧다운 제도’를 실시 중이다. 점심시간에도 ‘PC-OFF 제도’를 통해 직원의 리프레시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끝내기 위해 직원들의 집중력 및 업무능률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며 야근은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다.

합리적인 회의 문화 또한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 오전 9시 이전 회의를 금지하며, 회의 시간도 1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태블릿 PC를 활용한 ‘페이퍼리스 문화’ 도입으로 불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시간도 절감했다. 그 밖에도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청원휴가 제도, 경영진 멘토링, 호프데이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은행을 만들고 있다.



업무 능률을 높이는 편의시설

부산은행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빈틈이 없다. 특히, 네 곳의 직장 어린이집은 사회적으로 워라밸이 유행하기 전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는 부산은행임을 보여준 대표 사례다. 2011년 3월 BNK전포동어린이집, 2015년 3월과 9월 BNK해운대어린이집과 BNK금정어린이집, 2016년 3월 BNK사하어린이집을 개원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사업장’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점 내에는 카페테리아, 피트니스 센터, 건강관리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일 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쉴 수 있도록 완벽한 공간 분리를 통해 효율적인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 확충을 통해 직원 만족을 실현할 것이다. 부산은행의 고객 만족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부산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 까닭이다.



일·삶 균형을 위한 퍼즐 조각 찾기

최근 퇴근 후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워라밸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고 있다. 일을 마치고 나선 누구나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기 마련. 당신의 워라밸 퍼즐을 맞춰줄 이색 취미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자.

붓 끝에 마음을 담아 퀸맵스튜디오

쉴 새 없이 일하다 문득 바라본 내 모습,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지루한 일상에 숨결을 불어넣을 힘, 예술을 통해 얻어 보면 어떨까. 부전동의 퀸맵스튜디오에서는 누구라도 화가가 될 수 있다. 이곳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미술 공방이다. 공방의 이젤과 진열장 위에는 작품들이 가득 놓여 있다. 마치 전시회에 온 것처럼 저절로 눈길이 간다.

이곳의 커리큘럼은 원 데이, 쓰리 데이, 포 데이 클래스부터 정규 클래스까지 다양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업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다. 정규 클래스의 경우 좋아하는 화가, 붓 쓰는 스타일 등으로 자신의 그림 취향을 알아보는 과정을 먼저 진행한다. 테스트 후에는 수채화, 동양화, 유화, 아크릴화, 판화 중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일만 남았다.

스튜디오를 빛내주는 수강생들의 그림들. 그 안에는 색색의 물감으로 풀어낸 감정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스트레스는 붓 끝에 털어내고 삶에 색다름을 칠하고 싶을 때, 이곳 퀸맵스튜디오를 기억해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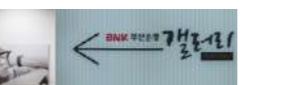
퀸맵스튜디오
주소 부산진구 부전로65번길 3 4층
문의 010-4560-0255



공감공유
스페셜 플레이스



예술이 있어 특별한 하루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인터넷에서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하루,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해본다. 미술관에서 그림도 감상하고 싶고, 영화관으로 가서 여운이 남는 영화 한 편도 보고 싶다. 마음이 쉽게 정해지지 않을 때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선 이 모든 걸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까.

아트시네마는 부산 중구의 부산은행 신창동지점을 리모델링하여 탄생했다. 밝은 빛, 주황빛이 조화를 이룬 건물 외관부터 웬지 예술적인 분위기가 풍겨온다. 미디어 아트 조형물 ‘도경(빛에 이르다)’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는 더욱 아름다운 빛을 뽐낸다. 1층의 은행 지점 위로는 모두 아트와 연관된 공간들이다. 2층엔 카페와 갤러리, 3층과 4층엔 소극장과 1인 창작실, 세미나실이 있다. 25년째 BIFF(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고 있는 부산은행은 아트시네마를 BIFF와 연관된 영화 상영 등 영화·영상 관련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BIFF가 처음 개최됐던 남포동 일대에 영화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 작년 12월에는 이곳에서 관객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제5회 관객영화제도 열렸다. 아트시네마 2층의 갤러리로 내려오면 영화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회 또한 만나볼 수 있다.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행복을 담은 민화> 회원전, 문대호 제6회 개인전 등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예술과 벗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도심 속 열린 문화 공간,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로 당신을 초대한다.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주소 중구 광복중앙로 13
운영시간 (2층 갤러리) 11:00~18:00
문의 (2층 갤러리)
051-246-8975, 051-620-3813



파도치는 선율의 바다 무지크바움



피로한 하루 끝에서 살아 숨 쉬는 음악과 만나고 싶을 때, 찾아가볼 만한 공간이 있다. 고전음악 전문 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바로 그곳. 거제동에 자리 잡은 무지크바움은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을 제공한다.

이곳의 음악 홀에 들어서면 무대 위 피아노와 스피커, 앰프 등 전문 오디오 기기가 눈에 들어온다. 45석의 아늑한 좌석과 벽면에 자리한 4,000여 장의 CD·DVD도 돋보인다. 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이면 근심거리는 잊고,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다. 클래식이 아직은 조금 낯선 당신일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지크바움에서는 4년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는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강연이 개최되고 있다. 한 달에 2번,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니 퇴근 후 가벼운 마음으로 가볼 만하다. 클래식도 듣고, 인문학 공부도 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시간. 지금껏 ‘바그너와 니체’,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등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왔다. 무지크바움은 클래식뿐만 아니라 월드 뮤직,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음악인들을 초청해 연주회도 진행하고 있다.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해, 무지크바움의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건네 보면 어떨까.

패션에 대한 단 하나의 사랑으로

디자이너 장광효

조용필의 오버 사이즈 재킷, 소방차의 승마바지 등 시대를 풍미했던 남성복 패션 뒤에는 언제나 ‘장광효’라는 이름이 있었다. 남성복 디자이너로 파리 컬렉션에 처음 진출한 이도 그였다. 언제나 시대를 한 발 앞서나가며 대중에게 사랑받아 온 스타 디자이너 장광효를 만나본다.

남성복에 새로운 개성을 입히다

‘대한민국 1호 남성복 디자이너’로 한국 패션계의 신화가 된 디자이너 장광효. 1987년 카루소를 설립한 후 33년간 한 시즌도 쉬지 않고 패션쇼를 펼쳐 왔다. 대중에게는 시트콤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를 비롯, 각종 예능 방송 출연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인생에는 여러 번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카루소’를 설립했을 때였다.

“서너 군데 직장을 옮겨 다니며 경력을 쌓았고, 원래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마지막 직장이 부도가 난 후 다시 취직하자니 급여나 조건이 맞는 곳을 찾기 힘들었죠. 그래서 저만의 브랜드 ‘카루소’를 설립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에 무채색 일색이었던 남성복에 새로운 디자인과 컬러를 입힌 장광효의 웃들은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조용필, 소방차, 서태지, 듀스, 안성기 등 유명 연예인들이 그의 옷을 입고 나와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다. 특히 조용필이 입은 한 치수 큰 오버 사이즈의 재킷, 소방차가 입었던 승마바지 등은 한 시대를 풍미한 패션이었다. 그의 브랜드 카루소도 승승장구하여 한때 전국 백화점에 40여 개 점포를 냈고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매출을 올렸다.



세계에 한국 패션을 진출시키다

1993년, 그는 그때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로 눈을 돌렸다. 패션의 도시 프랑스 파리의 프레타포르테 남성복 컬렉션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한국 남성복 디자이너로서 컬렉션에 참가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의 패션쇼 소식은 현지 매체에 크게 소개됐으며 ‘동양의 장 폴 고티에’라는 극찬을 받았다.

“지금은 케이팝의 인기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제가 갔을 때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젠 우리나라 패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후배들이 파리, 밀라노, 뉴욕 등의 컬렉션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요. 그때 제가 처음 나가서 (개척을 한 것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 흐뭇한 마음입니다.”

정부의 지원도 바랄 수 없었던 시절, 온전히 자비로 해외 패션쇼에 나가 한국 패션을 세계에 알린 업적은 지금까지 많은 후배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1991년 동료 디자이너들과 의기투합하여 ‘서울 패션 위크’의 전신인 ‘스파 컬렉션’을 만든 것도 우리나라 패션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 그에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직원 수도 180여 명 가까이 늘어나자 국내외 패션쇼를 준비하기에도 바빴던 그로서는 감당이 잘 안 됐다.

“파리, 서울, 대구 컬렉션뿐 아니라 부산 프레타포르테 등 해야 할 작품 활동은 산더미 같은데 사업 관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점포들을 철수시켰지요. 정리하고 나니 바로 IMF가 터져서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 미리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소규모로 사업을 꾸리며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기로 한 뒤, 국내 패션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입 패션 브랜드들이 백화점에 대거 진출해 국내 디자이너들의 백화점 사업이 예전 같지 못했던 것. 그도 시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홈쇼핑 사업에 진출했다. 다행히 홈쇼핑 사업은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 덕분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세련되고 멋진 옷을 만든다’는 그의 패션 철학이 대중으로부터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트렌드를 이해하지 않는 패션은 혼자서 외로워요. 최신 유행이나 패션 트렌드를 잘 숙지하고 소화시켜 저만의 스타일로 옷을 만듭니다. 시사·정치·경제·문화 현상 중에서 눈길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요소를 제 옷에 꼭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정치·경제·문화 현상 중 제 눈길을 끌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요소를 옷에 꼭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렌드와 동떨어진 패션은 외롭기 마련이니까요.”



옷에 대한 열정은 계속된다

장광효는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에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소식하고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며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한 덕분이다.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이지만 은퇴도 생각해봤다고 말한다.

“은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인간에게 정확한 은퇴 시점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옷을 안 만든다고 해서 누워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진 않겠죠? 나이에 상관없이 옷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대중들을 위해 계속 활동하고 싶어요.”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지만 자신이 30년 넘게 컬렉션을 위해 만들었던 옷들과 기증받은 앤티크 신사복 등을 모아서 패션박물관이나 패션갤러리를 설립할 구상도 하고 있다. 패션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간직한 소년인 채로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장광효. 그가 펼쳐나갈 패션 세계는 아직 무궁무진한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모스크바에 간다면 | 아브람체보

아브람체보의 동화

글_ 권용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재물이 현자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19세기 말 러시아의 철도왕 사바 마몬토프.

그가 써내려간 동화의 요람 아브람체보 마을로 여행을 떠나보자.



20

예술가들의 마을, 아브람체보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 41호 전시실, 크지 않은 액자 속 볼이 발그레한 소녀가 복숭아를 쥐고 식탁에 앉아있다. 발렌틴 세로프(1865~1911)의 출세작 『복숭아를 가진 소녀(1887)』이다. 하양과 노랑과 분홍에 부딪힌 햇살은 크림을 쏟아 부은 것처럼 화면 전체에 부드럽게 펴져 있다. 한참 뛰어놀다가 돌아온 듯, 바람에 헝클어진 소녀의 머리와 상기된 볼에 들판의 가을 냄새가 묻어있다. 러시아의 ‘국민여동생’이라 할 만한 이 소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려면, 100여 년 전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던 모스크바 근교의 아브람체보 마을을 찾아야 한다. 지난 호에서는 10월 혁명의 예고편처럼 19세기 말 러시아 주류화단을 전복했던 ‘이동파’ 화가들과 그 후원자 파벨 트레차코프를 소개하였다. 아브람체보의 주인공은 당시 트레차코프와 쌍벽을 이루었던 또 한 사람의 위대한 파트롱(후원자), 사바 마몬토프(1841~1918)이다. 그리고 그림 속의 소녀는 그의 사랑스런 딸 베라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속도를 더하던 러시아에는 새로운 계급 출신의 재벌들이 등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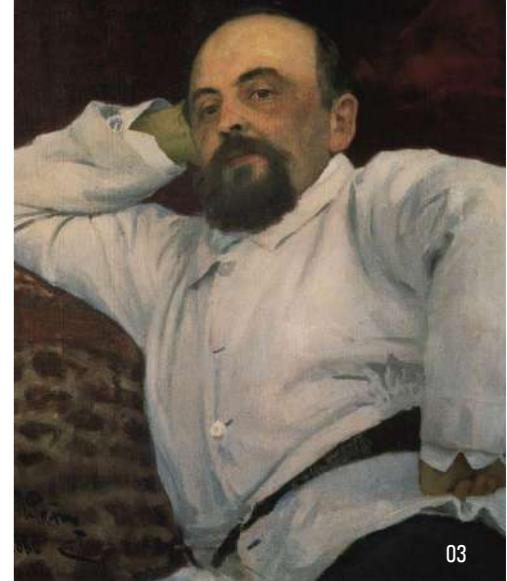
02 마몬토프 서클의 요람,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03 일리야 레핀,

사바 마몬토프의 초상(1880)



있었다. 바뀐 세상에서 신흥자본가들이 사회의 주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선을 베풀고 문화예술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후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파트롱들 중에서도 사바 마몬토프와 파벨 트레차코프는 후원의 수준이나 의미에 있어서 단연 두드러진 투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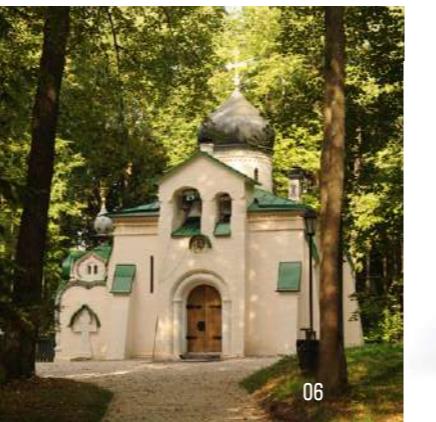
사바 마몬토프의 별명은 ‘철도왕’이다. 그는 러시아 최초의 철도부설에 관여한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아 제국의 산업혁명 주역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거친 쇠를 다루던 이 사업가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그는 예술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예술가였다. 해마다 가족들과 겨울을 나던 이탈리아에서 성악을 배웠고, 직접 희곡을 써서 무대연출을 맡는가 하면 배우로 나서기도 할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문화예술에 대한 그의 지원방식은 다른 파트롱들과 사뭇 달랐다. 그는 아브람체보에 터전을 마련하고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을 초대했다. 풍경화가 바실리 폴레노프와 조각가 마르크 안토콜스키를 주축으로 일리야 레핀까지 합류하여 시작된 이 그룹에,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마몬토프는



04



05



06



07

여름의 아브람체보와 겨울의 모스크바 저택에서 이들과 따로 또 같이 작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참여한 예술가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와 형제애 속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을 쏟아내었다. 이들을 ‘아브람체보파’ 또는 ‘마몬토프 서클’이라 부른다.

대가들의 작품 가득, 숲속 작은 교회

마몬토프 서클의 키워드는 ‘슬라브적 전통의 회복’이었다. 18세기 초 위대한 군주 표트르 대제(재위 1682~1725)의 서구화 대개혁으로 제정러시아는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지만, 각 분야에서 슬라브적 전통이 사라져 가고 있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러시아 지식인 사회는 조국의 미래를 놓고 ‘서구화주의자’와 ‘슬라브주의자’ 그룹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한다. 마몬토프와 그의 친구들은 러시아가 타락한 서유럽의 뒤를 따를 것이 아니라 슬라브적 전통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몬토프 서클의 요람은 아브람체보 숲속에 고즈넉한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저택 구석구석을 거닐며 그들의 흔적을 느껴본다. 아브람체보의 백미는 숲속의 작은 교회이다. 1880년 봄, 보랴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이곳 사람들은 인근 호텔코보 교회의 부활절 미사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저택 옆 숲에 지어진 교회는 슬라브적 전통의 부활을 꿈꾸었던 마몬토프 서클의 표상이다. 폴레노프는 탐사단을 구성하

여 모스크바 북쪽의 중세도시들을 둘러보며 사라진 슬라브 건축양식의 자취를 찾아내었고, 그와 레핀·바스네초프·브루벨은 교회 안 공간을 대가들의 작품이 가득 찬 보물창고로 만들어 놓았다. 1882년 말 완성된 교회에서 가진 첫 행사는 폴레노프와 야쿤치코바의 결혼식이었다. 한편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이다.

마트료시카의 어머니 엘리자베타

아브람체보 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은 이곳의 안주인 엘리자베타이다. 개성 강한 예술가들을 한 가족으로 넉넉하게 품어낸 그녀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엘리자베타는 이웃 농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진료소를 만들어 직접 치료까지 도왔고, 인근 호텔코보에 도서관을 지었으며, 브이코보에는 여학교를 세웠다. 모든 것이 무료였던 이 학교는 1873년 개설되어 혁명 전까지 33년 동안 운영되었다. 1882년에는 농민가정의 남자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소목공방을 열었다. 교육은 역시 무료였고, 고아들도 받아들여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농민의 자식들에게 이 같은 기회는 복음과 다름없었다. 엘리자베타의 이런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었다.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히던 시기, 한동안의 무정부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가진 자의 모든 것을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하지만 아브람체보는 무사했다. 엘리자베타와

함께한 시간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를 여행한 사람이라면 오뚜기 같은 목제 인형 ‘마트료시카’ 하나쯤은 기념품으로 사온다. 엘리자베타는 이 마트료시카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1890년 처음 탄생한 마트료시카는 일본 목각인형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르게이 말류친이 디자인하고 목공예가 바실리 즈보즈도치킨이 깎아낸 것이었다. 엘리자베타는 1900년 이 인형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하여 동상을 수상한다. 이후 마트료시카는 가까운 세르기예프 포사드에서 대량생산되면서 러시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된다.

러시아 예술가들의 마음의 고향

『복승아를 가진 소녀』를 그린 발렌틴 세로프는 열 살 때 아브람체보에 들어와 베라와 함께 자란 ‘아브람체보의 아이’였다. 유명 작곡가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세로프는 어머니를 따라 독일로 갔다가 파리에 머물렀다. 당시 그곳에 유학 중이던 레핀은 꼬마 세로프를 무척 귀여워했다고 한다. 1874년 로마를 여행하고 돌아가던 길에 파리에 들른 마몬토프 부처는 절친했던 친구의 미망인과 그 아들을 만나 아브람체보로 데려간다. 1877년 마몬토프 서클에 합류한 레핀은 세로프에게 체계적으로 드로잉을 가르쳤고, 페테르부르크의 미술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복승아를 가진 소녀』를 그렸을 때 세로프는 스물두 살, 베라는 열두 살이었다. 그날 베라는 아이들과 신나게 전쟁놀이를 하고 돌아온 참이었다고 한다. 아브람체보에는 베라가 앉았던 식탁이 그림의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다. 레핀은 그해 겨울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동파 전시회에 이 작품을 걸었고, 그의 예상대로 폭풍 같은 찬사가 쏟아졌다. 약관의 세로프는 이 작품 하나로 단숨에 유명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마몬토프 부부의 맏딸이었던 베라는 결혼 후 서른두 살의 성탄절 무렵 폐렴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너무 짧은 생이었지만 아브람체보를 거쳐 간 예술가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베라의 모습은 그들의 여러 작품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난 적이 없는 후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귀여운 여동생으로 살아있다. 세기말 러시아 예술가들에게 아브람체보라는 마음의 고향을 선물하였던 마몬토프의 맏년은 불행했다. 궁정의 보수귀족들은 급변하는 세상과 천박한 자본가가 승승장구하여 세상의 주역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1899년 그들은 마몬토프에게 공금횡령 등의 혐의를 뒤집어씌워 체포한다. 재판이 열리고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지만 그는 쓰라린 파산을 받아들여야 했다. 60세의 마몬토프는 이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아브람체보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 베라와 아내 엘리자베타 그리고 외손자 세르게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고적한 맏년을 보내다가 영육으로 얼룩진 삶을 마무리하였다. 그의 나이 77세인 1918년의 일이었다. 마몬토프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써내려간 아브람체보의 동화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재물이 현자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깨우쳐준다.



08

가족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

이중섭의 ‘돌아오지 않는 강’

글_ 손이천 케이옥션 수석경매사

이중섭의 작품을 지배하는 정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리움’이 아닐까. 소년 시절 북에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생이 별한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올 1월 경매에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의 마지막 작품 <돌아오지 않는 강>에도 그러한 그리움이 절절히 배어 있다.

사진 제공_ 케이옥션

한민족 고유의 정서를 담은 작품 세계

국내 경매 최고가 10점 중 9점을 김환기의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9위에 이름을 올린 작가가 이중섭(1916~1956)이다. 박수근과 함께 한국 근대화단의 거장으로,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아온 이중섭은 자신의 고통을 독창적인 예술언어로 화면에 담았다.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역사를 대면할 수 있다.

전쟁의 비극과 가난, 궁핍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창작의 동기가 되었다. 동시대 많은 작가들이 서구의 미술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때 이중섭은 서양의 표현기법을 차용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감수성과 정서를 담아 자신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담뱃갑 속 종이를 이용한 은지화, 가족들에게 보낸 수십 여장의 그림편지(편지화)에 사용된 표현기법과 매체는 현대작가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참신성을 지닌다. 그의 경쾌하고 유연한 필선의 은지화는 그 고유성을 인정받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중섭 <돌아오지 않는 강>
Oil on paper, 18.5x14.6cm, 1956
추정가 1억 5천만 원~3억 5천만 원
낙찰가 1억 6500만 원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년과 화면 뒤편에 광주리를 머리에이고 있는 여인은 이중섭이 어린 시절 북녘에 흘로 두고 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담은 것이다.





생이별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대지주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중섭은 유복한 유년시절을 보내며 일제 강점기에도 미술에 전념할 수 있었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다. 스무 살 이중섭은 미술 공부를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고, 일본 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 만난 야마모토 마사코와 1945년 원산에서 결혼한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남쪽에서 온 덕 많은 여자라는 뜻의 '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이중섭과 이남덕.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피란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헤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마지막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원산이 된 것이다.

부산을 거쳐 제주도까지 피란을 가게 된 이중섭 가족은 해안가에서 게나 조개를 잡아먹기도 하였는데, 그때의 모습을 작품에 담기도 하며 잠시 평온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중섭 그림에서 소만큼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게'인데, 제주에서 게를 많이 잡아먹어 게에게 미안한 마음에 게를 많이 그렸다는 것이다. 이후 이남덕의 건강이 나빠지고 이남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1952년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 가족을 너무 그리워하던 이중섭은 1953년 일본에 잠시 다녀오게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만다. 가족과 생이별한 이중섭은 필사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다.

그리움에 그림을 그리다가 또 편지를 썼다. 이중섭과 이남덕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중섭은 편지지에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바로 그림편지, 편지화이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바라보며

총 300여 점으로 알려진 이중섭의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는 어린이, 소, 가족, 물고기, 게, 달과 새, 연꽃, 천도복승아 등이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의 소재는 <소>일 것이다. 그가 통영에서 보낸 시절(1953~1954년 경) 그렸던 <소> 연작은 이중섭 작업의 백미로 평가된다. 특히 그는 자신의 내면을 뛰어난 선묘력을 통해 역동적인 소를 표현했다. 이런 선 표현의 능란함과 강렬함은 은지화, 편지화, 삽화 및 스케치 등 드로잉 작품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케이옥션 1월 경매에 출품되었던 이중섭의 <돌아오지 않는 강>은 작가가 세상을 뜨던 해인 1956년에 그린 마지막 작품 중 하나로, 작가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소년 시절 북녘에 홀로 남겨두어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마릴린 먼로 주연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이중섭이 직접 제목을 따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같은 제목의 비슷한 구도의 작품이 5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이번 경매에 나온 것이 가장 수작으로 평가된다.

애틋한 그리움 화폭에 한가득

영화 신문광고를 잘라 벽에 붙여 놓고 바로 아래 아내로부터 온 편지를 잔뜩 붙여 놓았다는 일화에서 작가가 이 작품을 제작한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더욱이 한국 전쟁 중 어머니를 북녘 원산에 남겨둔 채 피란해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늘 이중섭을 괴롭혔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생애의 마지막 작품을 남겼다.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년과 화면 뒤편에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은 이중섭이 어린 시절 북녘에 홀로 두고 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담은 것이며, 또 중앙의 위치한 흰 새는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상징체로 여겨진다.

“지난 봄 동부지구엔 설화(雪禍)로 눈이 길길이 서울에도 쌓였을 때였네.”

형은 와병 중에서도 한 폭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여인이 머리에 무엇을 이고 흰 눈을 맞으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창문을 열어젖힌 난간에 한 사람의 장년(壯年)이 멀리 문밖을 응시하고 있는 그림, 그것은 형이 동도(東都)에 남겨둔 권속(眷屬)들을 그리워하는 그림이 분명하였네. 그리고 형은 그 그림 밑에다가 얌전한 글씨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화제를 불이고, 그것은 마릴린 먼로 주연의 영화 이름이었지만 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길을 벌써 그때부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그 때 그림을 침두(枕頭)에 놓고 있는 형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 화제를 떼버리고 곧 그림을 빼었다가 내 서가 위에 붙여 두었었네. 이제 그 그림이 유일한 형의 절필이 되고 말았네.”

- 조영암(1956), <돌아오지 않는 강>, 『주간희망』 중에서

불안한 삶을 비추는
두 개의 거울

기생충 & 플로리다 프로젝트

글_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 문화웹매거진 ize 편집장

어쨌건 먹고는 산다. 그러나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것 같
은 계급의 벽이 있다. <기생충>과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2010년대의 가난을 예리하게 파헤치며, '내일이 불안한 삶'
이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현실이 됐음을 보여준다.

<기생충>은 2010년대의 가난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기택 가족을 고용하는 부유층 동익(이선균)이 '냄새'로 표현한,
사회 어디에든 스며들어 있는 풀수 없는 무엇이다.



전 세계적 이슈가 된 <기생충>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기생충>이 지난 해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을 때, 그것은 한국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한국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 이 작품은 한국의 사회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두 사건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들 알다시피 <기생충>은 이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흥행에 성공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으며,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주요부문인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그 사이 봉준호 감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시장을 대변하는 아카데미상의 수상 여부에 대해 '로컬(특정 지역) 시상식'이라고 쿨하게 평가하는 일도 있었다. <기생충>은 미국에서도 이미 3천만 달러 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뒀다. 미국 관객들에게 언어 장벽이 있는 한국 영화가, 그리 많지 않은 개봉관에도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놀랍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난해 전 세계의 비평가들이 뽑은 각종 '올해의 영화' 리스트에는 <기생충>이 마틴 스콜세지의 <아이리시맨>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의 가난을 보여주다

<기생충>에 대한 전 세계적인 환호는 한국 관객으로서는 오히려 의아할 수도 있다. '대만 카스테라' 사업을 하다 몰락한 가족, '짜파구리'에도 한우를 넣어 먹는 부유층 등 <기생충>은 한국에서 살아야 할 수 있는 코드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전 세계 관객들은 통신비를 낼 수 없어 반지하 집에서 바깥의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아 헤매고, 폭우로 그 반지하집에 물이 들어오자 어떻게든 물을 퍼내려는 기택(송강호)의 가족에서 무언가 공통된 감정을 느낀 것 같다.

빈부격차는 그 모습만 다를 뿐,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나 말이다. 단 한번의 사업만 빼끗해도 순식간에 경제적인 몰락이 기다리고, 부유층의 일을 돋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가지 않는 시간에, 또는 지하를 통해 피고용인들의 세계를 형성한다. 한국의 IMF,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인들은 바로 내일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됐고, 미국에서는 빈부격차에 항의하는 군중이 미국 월스트리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월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인에게 지옥 같았던 IMF가 1997년이었다. 그 사이 경제적인 몰락을 겪었던 가정의 아이들이 기택의 자식인 기정(박소담), 기우(최우식)처럼 성인이 됐다. 그들은 피자 박스를 접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면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는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

다. 기정과 기우처럼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따라 나름 공부를 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기우와 기정이 겪는 가난의 풍경은 기택의 세대가 어린 시절 겪은 했던 가난과는 다르다. 어쨌건 먹고는 산다. 패스트푸드나 싼 치킨이라도. 옷도 입는다. 패스트 패션을. 하지만 유학을 떠나는 부유층인 기우의 친구 민혁(박서준)처럼, 기우 입장에서는 절대로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계급의 벽이 있다. <기생충>은 2010년대의 가난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것은 기택 가족을 고용하는 부유층 동의(이선균)이 ‘냄새’로 표현한, 사회 어디에든 스며들어 있는 풀 수 없는 무엇이다.

디즈니랜드 옆 빈민촌 아이들

미국의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왜 미국에서도 <기생충>에 열광했는지 이해하게 만든다. <기생충>이 극단적으로 다른 기택과 동의의 집을 배경으로 한 것처럼,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빈민 계층이 장기 투숙을 하는 모텔을 배경으로 한다. 그들은 매주 숙박비를 대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저렴한 모텔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모텔촌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마냥 장난을 칠 뿐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놀이의 소재다. 화창한 플로리다의 햇빛과 분홍색으로 칠해진 모텔촌의 풍경은 모든 것을 평화로워 보이게 만든다. 하지만 아이들은 배가 고파지면 구호 단체에서 나눠주는 빵을 먹어야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려 명의 엄마 또는 할머니들은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정부의 지원을 얻어보려 하지만 정부는 가난한 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며 지원에 인색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모텔에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세계 최대의 놀이공원 디즈니랜드가 있다. 그 곳에서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가족들이 4인 가족 기준 각종 놀이기구 패스만 100만 원 이상을 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2010년대의 가난은 그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바로 조금 옆에 그리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도록 사회의 풍경 속에 그럴 듯하게 섞여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는 가족과는 완전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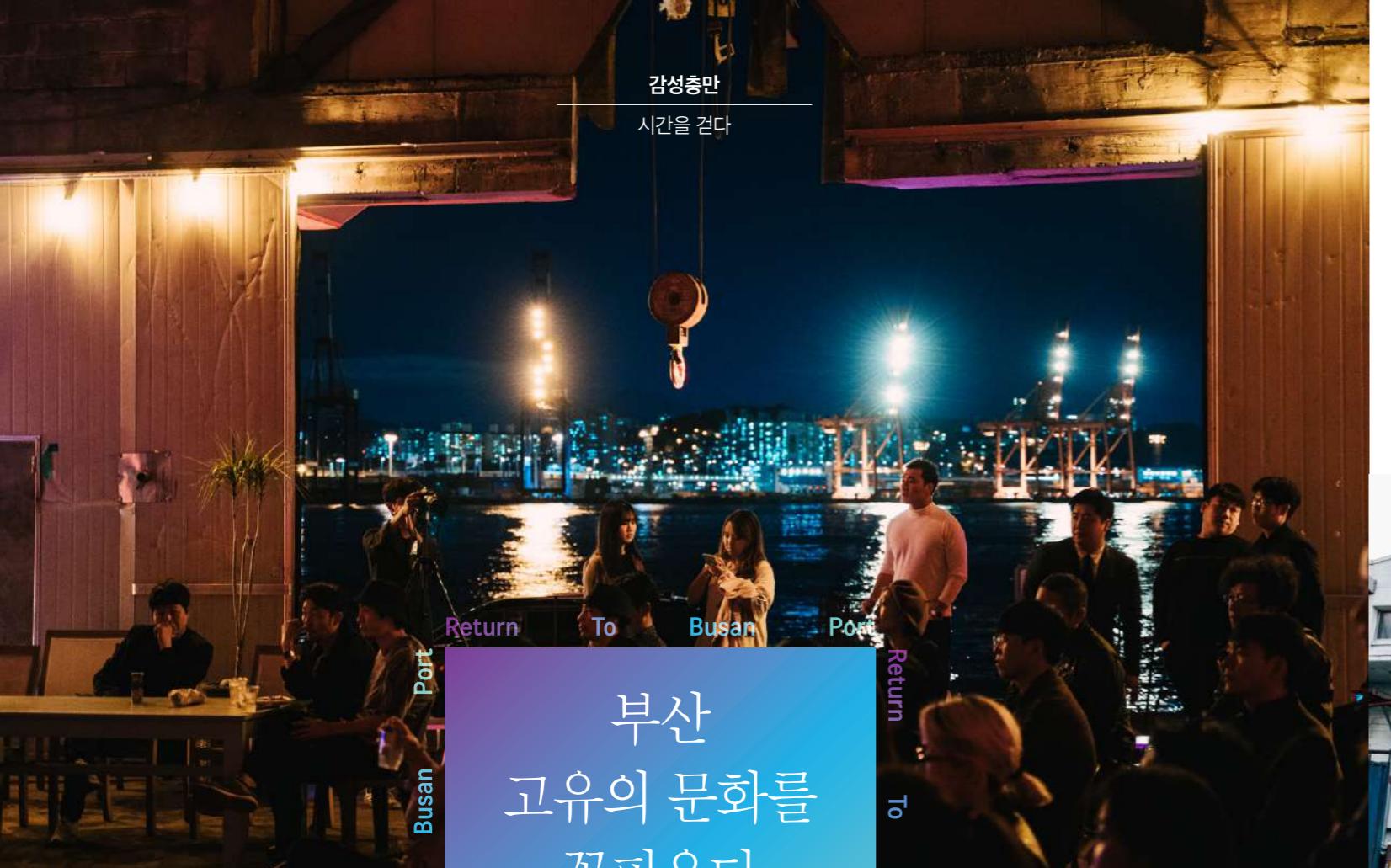


2010년대의 가난은 그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의 바로 조금 옆에 그리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도록 사회의 풍경 속에 그럴 듯하게 섞여 있다.

넘어설 수 없는 벽에 대하여

이 영화의 감독 션 베이커는 실제로 디즈니랜드 옆에 빈민들의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만들 생각를 하게 됐다고 한다. 모텔에서 사는 아이들은 바로 옆의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아니면 그 곳에 엄마와 함께 물건을 팔러 가든가. 원하는 것이 지하실 위층의 거실에, 바로 옆의 디즈니랜드에 있다. 하지만 그 곳으로 갈 수 없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생충>과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사뭇 다른 결론을 맺는다. <기생충>이 빈부격차에 따라 빈민이 부유층에 대해 무엇을 할 수도 있다는, 우발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서늘한 결말로 치닫는다. 반면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빈곤층에서도 더 빈곤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나는지 보여준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던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그나마 빈약한 사회 안전망 바깥으로 내몰린다. 정부는 뒷짐 지고 있다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쯤 나타난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빈민들은 밝고 화창한 디즈니랜드 주변에서 조용히 사라져 간다. 그리고 모텔 방은 다른 빈민들로 채워진다. <기생충>의 가족은 반지하방에서, 또는 동의의 지하방에서 거실로 올라왔다.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빈민의 현실이라면, <기생충>은 그로부터 빈민이 선택할 수도 있는 어떤 상상이다. 지금 <기생충>에 열광하는 세계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감성충만
시간을 걷다

Return To Busan Port

Return To Busan Port

부산
고유의 문화를
꽃피우다

알티비피 얼라이언스

사진 제공_알티비피 얼라이언스

32



바다 위에 눈부시게 빛나는 섬, 영도. 빼어난 풍경이 널리 알려지며 영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나날이 발전하는 영도에 최근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 근원지는 바로 알티비피 얼라이언스. 지역이 지닌 가치에 주목하는 공간, 알티비피로 가본다.

INFORMATION

주소 영도구 해양로 110
문의 051-418-7666



지역이 품은 가능성의 뿌리 찾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스타트업, 알티비피.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살핀다. 그리고 그것의 활용 방법과 가치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나간다. 회사명인 알티비피(RTBP)는 Return To Busan Port의 약자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그 뜻에서부터 부산 특유의 문화를 가꿔나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느껴진다.

끄티, 과거와 오늘이 맺은 결실

알티비피는 메이커·코 워킹 플레이스 ‘플랫폼135’, 영도의 빈집을 활용한 커뮤니티 리조트 ‘비탈788’, 복합 문화 공간 ‘끄티’ 등 여러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끄티는 알티비피만의 색다른 시도가 보다 돋보이는 장소다.

이름처럼 영도 끝에 자리 잡은 끄티, 원래는 조선·항만 물류 창고로 이용되다 언제부턴가 방치됐던 곳이었다. 오래된 창고는 그 외관을 유지한 채 영도 이색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끄티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역시 거의 옛 창고 구조와 비슷하다. 얼핏 보면 허전한 공간이지만 전시, 공연, 설치 활동이 진행돼 매번 색다른 느낌으로 채워진다.

끄티에서는 카누 만들어 타기 학교, 장애 예술인 쇼케이스, 테크노 파티, 오디오 비주얼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됐다. 바다가 한눈에 보여 한층 더 예술적인 풍경이 연출되는 끄티의 바깥 풍경도 이곳의 백미다. 조선·항만 물류 창고를 보존한 끄티는 조선업 호황기였던 영도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다. 더 나아가, 알티비피는 이곳에 예술의 색을 입혀 다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가는 중이다. 영도의 숨은 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알티비피는 오늘도 도약의 닻을 올린다.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0년 경자년에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고 신설되었다. 그중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세제, 대출, 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것이 변경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제도가 강화되고 취득세가 바뀌는 등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졌다.

글_ 김명선 연산동금융센터 자산관리팀장



①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1월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 대출금을 회수한다. 아울러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다.

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세율 변경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작년에는 2%였으나 이제 취득금액에 따라 1.01%에서 2.99%로 세분화된다. 6억원은 취득세 1%, 7억 5천만원은 2%, 9억원은 3%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이다. 또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③ 주택청약시스템 '청약홈'으로 이관

주택 청약시스템이 2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을 마지막으로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는 폐지되고 '청약홈'으로 이관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미리 제공한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④ 부동산 중개 보수, 계약서에 협의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 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 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하며, 거래 양 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 왔다.

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계약이 안 되었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⑥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정부는 12.16 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인상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서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오늘날 '킥스'를 만든 나이키 르브론 X MVP 농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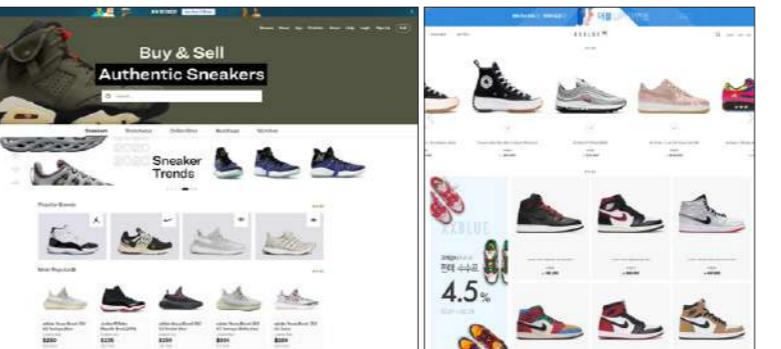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의 신개념 투자

스니커테크

밀창이 고무로 되어 걸을 때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살금살금 걷다(Sneak)'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신발 스니커즈.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가 이제는 단순한 상품이 아닌 투자 대상이 되었다. 스니커즈에는 대체 어떤 매력과 가치가 숨겨져 있기에 이토록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일까?

벤자민 카펠루쉬닉의 성공신화는 계속된다

부모의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었던 13세 소년이 있었다. 스니커즈 리셀(Resell; 재판매) 사업을 독학한 그는 나이키 르브론 X MVP 농구화를 400달러에 사서 4,000달러로 되파는 데 성공했다. 훗날 온라인 쇼핑몰 '스니커돈(Sneakerdon)'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한정판 스니커즈를 취급하기 시작하며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했다. '킥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2000년생 레어 스니커 브로커 벤자민 카펠루쉬닉의 이야기다. 개인 간의 한정판 운동화 거래는 예전부터 빈번했지만, 대규모 사업자가 등장할 만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한때 '샤테크(샤넬+재테크)'가 유행했듯이 명품 위주로 이루어지던 리셀 시장의 취급 품목이 바뀌며 '스니커테



미국 스니커즈 거래소 Stock X와 국내 레어 슈즈 거래 플랫폼 XXBLUE

크'가 급성장했다.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맞게 시장이 탈바꿈한 것이다.

경매와 플랫폼 시장까지 밟을 뻔친 운동화

한정판이란 특정 기간에 한정된 수량만을 판매하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다. 그만큼 희소가치를 지녔기에 스니кер테크 시장이 나날이 커지는 현재, 신발을 구하는 일 자체가 이미 전쟁이다. 스니кер테크 품목 지분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나이키는 새 한정판을 출시할 때마다 '드로우(제비뽑기)'를 통해 신발 구매권을 부여한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추첨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 금전적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미술품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 때문에 경매시장 또한 스니кер테크 시장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미국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스톡엑스(Stock X)'는 창업 3년 만에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중국에서는 투기성 주식매매를 뜻하는 '차오구(炒股)'에서 따온 '차오셰(炒鞋)'라는 신조어로 스니кер테크 시장을 표현한다.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블루는 국내 최초로 레어 슈즈를 비롯한 레어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XXBLUE'를 런칭하기도 했다. 스니кер테크의 열기는 계속 이어져 2025년 운동화 리셀 시장 규모가 7조 원까지 성장하리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 지닌 마성의 함정

마니아들 사이의 취미 본위 거래가 아닌 영리 목적의 시장이 형성되자 불법 또한 함께 횡행되고 있다. 한정판 운동화가 고수익을 창출하자 위조품 제조 및 유통이 늘어났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전문 거래 플랫폼이 생겨났지만 나날이 사기 거래 피해액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나이키 같은 운동화 업체들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정판 발매를 일삼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운동화 재판매 가격 또한 올라가기에 스니кер테크 사업자와 브랜드 업체의 유착 관계가 빚어질 수도 있다.

세금 문제까지 더해져 스니кер테크 시장은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스니кер테크로 인한 차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국세청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1,200만 원 미만 규모는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들다. 해외 직구 면세품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되팔아 이득을 취하면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 등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벤자민 카펠루쉬닉 같이 성공한 사업가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공정 거래에 대한 책임이 뒷받침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레어 스니커즈 브로커 벤자민 카펠루쉬닉

기계들의 금융 전쟁 고빈도 거래(HFT)

글_ 배경훈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빈도 거래자는 고성능 컴퓨터와 최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시장들 간 정보의 격차로 인한 가격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거래하는 프로그램이다. 1초에 수만 번에서 수백만 번 거래를 할 수 있는 고빈도 거래자에게 대응할 방법은 무엇일까?

금융 시장은 기계들의 전쟁터

미래의 전쟁은 기계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인간을 대신하여 보병 로봇, 무인 정찰 드론 그리고 무인 전투기 등 기계들이 전쟁터에서 활약을 할 것이다. 현재 금융 시장은 이미 기계들의 전쟁터이다. 미국 시장의 경우 주식 거래량의 약 10% 정도만이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인간에 의해서 거래된다. 나머지 90%는 자동화된 프로그램, 즉 기계에 의해서 거래된다.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한 거래량 중 50%가량은 고빈도 거래(High Frequency Trading, HFT)를 하는 기계들이 차지한다. 금융 시장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빈도 거래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빈도 거래자는 고성능 컴퓨터와 최첨단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시장들 간 정보의 격차로 인한 가격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거래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투자들에게 1초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고빈도 거래자들은 1초에 수만 번에서 수백만 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들은 10억 분의 1초 단위로 정보를 기록하

고 시장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초단기간에 존재하는 금융 시장들 간의 가격 불일치를 찾아내고 고빈도의 대량 거래를 통해서 이들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다. 고빈도 거래 전략은 근본적으로 빠른 거래 속도에 바탕을 둔다. 거래 기회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가장 큰 수익을 남긴다. 기업의 실적 발표, 중앙은행의 이자율 결정 등과 같이 반복되는 이벤트에서 금융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고 가장 빠르게 거래를 하는 것이 고빈도 거래자들의 목표이다. 이들은 블룸버그,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 등에서 텍스트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거래한다. 텍스트 정보에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회사를 식별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단어 및 구절들을 모니터링하며 초단기 거래 기회를 찾아낸다.

고빈도 거래의 명과 암

고빈도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계 및 업계에서 의견들이 분분하다. 고빈도 거래는 초단기적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고빈도 거래로 인해 시장들 간에 정보의 격차와 가격의 불일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투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정보를 1초 더 빨리 반영하더라도 투자 의사결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또한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거래 기회를 고빈도 거래자들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투자들에게는 그만큼 거래 비용이 증가된다. 일반 투자들에게는 고빈도 거래로 인해 시장이 더 비효율적으로 된다고도 볼 수도 있다.

고빈도 거래자들은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매수-매도 호가 간격을 줄인다. 하지만 고빈도 거래자들이 공급하는 유동성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순간적으로 증발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증발되는 경우, 시장은 단기

적으로 폭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5월 6일, 고빈도 거래가 공급하는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증발되었고 DJIA(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20분 만에 10% 폭락하고 다시 상승했다.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제일 필요한 시점에서 고빈도 거래자들은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저빈도 거래 및 장기 투자로 대응해야

개인 투자자들은 고빈도 거래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초단기 예측을 통한 단기적인 투기 거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고빈도 거래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의 빈도를 줄이고 매매 회전율을 낮추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을 주문할 때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 주문을 적극 활용해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빈도 거래 때문에 발생하는 순간적인 가격의 폭락 및 폭등에서 본인의 거래를 보호할 수 있다. 지정가 주문 대신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경우 순간적인 유동성 증발로 인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 경우 폭락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 시장은 더 고도화되고 있다. 대량의 자본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시장을 점령하려 한다. 특히, 고빈도 거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단기 거래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초고도화된 금융 시장은 단기적인 투기 거래를 하는 개인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 시장의 고도화된 기술을 이해하고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엔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저빈도 거래를 활용한 장기 투자밖에 없어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 패권을 넘볼 수 있을까?

글_ 최남수 경제평론가, 전 YTN 사장

중국의 부상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에 큰 차이가 없다. 미국 국민 전반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충돌을 불사하면서 중국의 굴기(屈起)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세 속에서 중국의 미국 추격 속도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년 반 이상 장군명군 식으로 관세 전쟁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부 낮추고 추가 관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중국도 예정된 관세부과 조치를 보류하고 향후 2년 동안 2,000 억 달러 정도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국의 1단계 합의는 말 그대로 휴전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의 3분의 2에 대한 고율 관세는 그대로 시행된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 수준이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3.0%에서 19.3%로 올라간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2단계 협상 테이블에는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중국 경제정책의 핵심을 건드릴 까다로운 이슈가 놓이게 될 것이다. 스티브 민努신 미 재무장관은 “2단계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2단계 협상은 ‘2단계 A’, ‘2단계 B’, ‘2단계 C’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복잡한 협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협상의 과정에서 미·중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올해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결과는 미·중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가 재선되면, 중국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015년 저서 ‘불구가 된 미국’에서 “우리는 중국에 나가떨어졌다. 중국을 적으로 칭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다”고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을 주저앉혀 글로벌 패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중국 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에 큰 차이가 없다. 미국 국

민 전반이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미국인의 비율이 2018년의 47%에서 2019년에 60%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미국인 24%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미·중 패권 경쟁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중국은 이런 난관을 뚫고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까? 중국의 경제 규모(명목 GDP)는 금융 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만 해도 미국의 31%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65%까지 극복했다. 중국이 종전과 같은 속도(명목 성장률 9.3%)로 성장하면 2028년~2031년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전망했다. 하지만 고령화와 부채 등 내부 문제로 성장 속도가 5% 정도로 낮아지면 추월 시기는 2054년~2062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기술 유출 억제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줌으로써 추월 자체를 막거나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레이엄 앤더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주요 국가의 부상이 지배 국가의 입지를 흔든 16개 사례 중 12개가 전쟁으로 이어졌다며 미·중의 충돌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양국 관계가 잘못 관리될 경우 전면적인 냉전이 이어지면서 ‘대리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충돌을 불사하면서 중국의 굴기(屈起)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세 속에서 중국의 미국 추격 속도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충돌이든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이든 두고두고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단계 휴전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BNK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도화지 가득, 행복한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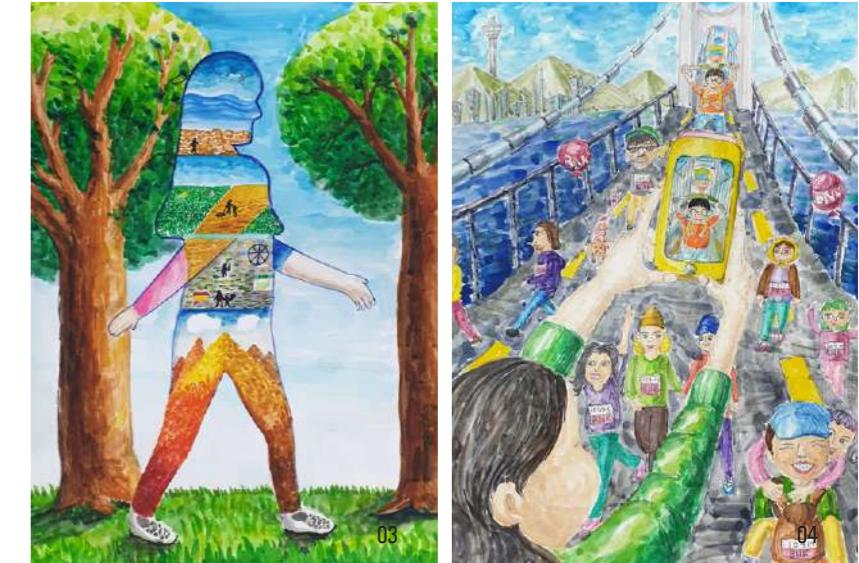
'걷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동참하고
지역 어린이들의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은행이 미술대회를 개최했다.
고사리 손으로 그려낸
천진난만한 동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보자.



대상

01 센텀초 1학년 서연오
<애들아! 같이 걷자>02 두실초 5학년 신예진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금상

03 연신초 4학년 이서진
<자연을 채우는 걸음>04 구덕초 5학년 김보민
<광안대교 걷기대회의 추억>05 용문초 3학년 손태준
<Save the Earth>06 종현초 3학년 안다은
<즐거운 수원지 둘레길과
걷기 좋은 부산>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부산은행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 미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지역 내 재학 중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학년(4~6학년)과 저학년(1~3학년)으로 나누어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걷는 즐거움, 행복한 걷기'를 주제로 내걸었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두 발로 걷는 즐거움을 그려낸 작품뿐만 아니라 걷기를 통해 지구 환경까지 보존하자는 성숙한 메시지를 담아낸 작품도 있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심사 결과 대상의 영광은 두실초등학교 5학년 신예진 학생과 센텀초등학교 1학년 서연오 학생에게 돌아갔다. 총 상금은 부상을 포함하여 840만 원이다. 수상작 222점은 부산은행 본점 BNK아트갤러리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전시된다. 한편, 부산은행은 이번 미술대회 참가자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환아 돋기 자금을 조성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탁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노고를 치하하고 함께 새해 각오를 다지는 원 페스티벌에서 올해도 CS 대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2019년 부산은행의 CS를 빛낸 주인공은 본점 영업부 이은주 대리.

그 누구보다 그에게 2020년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I N T E R V I E W

공감하다

부산은행 2020 ONE Festival

CS 대상 수상자 본점 영업부 이은주 대리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

이은주 대리는 2015년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김해 내외동지점 및 여수 본부 부서 근무 후 현재 본점 영업부 일선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새해의 시작을 큰 상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뻐요. 작년 한 해 노력했던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고객 한 분 한 분께 더 정성을 다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CS 대상은 매월 CS챔피언 선정 요건인 고객만족도 우수직원 평가(CSI), 고객경험관리 친절직원 평가(CEM), 업무처리 빠른 직원 등 개인 마일리지 점수뿐만 아니라, 업점 서비스 점수, 개인 세일즈 실적, 내점 고객 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모든 CS챔피언들이 꿈꾸는 영예이기도 하다.



“지점에 대한 기여도가 CS 대상 수상 조건에 포함되듯이,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화목한 분위기와 환상적인 팀워크 덕분에 지점 평가는 물론 개인 평가 점수 또한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점 영업부에는 원 페스티벌 최우수매니저상 수상자 정영준 부장, 세일즈스타상 수상자 이윤경 대리 등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인재들이 포진되어 부산은행의 기둥으로서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은주 대리 역시 그 반열에 함께하며 부산은행의 가치를 드높이는 중이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자세로

많은 고객 만족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CS 대상. 고객에게 사랑받는 행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으니 이은주 대리는 신속한 업무 처리와 공감 능력을 꼽았다.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투자 상담과 더불어 고객의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상담했던 것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 금융 전문가로서 자기 개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자격증 공부는 물론 각종 연수에도 적극 참여하며, 작년에는 CS하이터치리더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수신업무에서 더 나아가 대출과 외환 업무 상담까지 가능한 만



능 은행원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2020년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해예요. 7월이면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일도 가정도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투철한 전문성에 친절한 접객 태도까지 모두 다 갖춘 직원들이 있기에 부산은행은 고객의 마음속에 넘버 원 은행으로 꾸준히 자리매김해왔다. 부산은행의 CS에 앞장서는 이은주 대리의 앞날에 소중한 새 생명과 함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한다.



동료 직원 칭찬 한 마디!

김혜영 차장 이은주 대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직원이에요. 섭외면 섭외, CS면 CS, 동료 직원과의 관계까지 원활해 칭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은주 대리처럼 일한다면 부산은행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은행 본점 영업부는?

부산은행의 지점을 대표하는 영업 본점으로, 전 직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로 고객을 위한 행복 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부산은행이 1월 17일 기장 연수원에서 경영진 및 부실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업의 위기, 딥 이노베이션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전년도 영업 실적 및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인 ‘부산시 디지털 바우처’ 사업 추진 등 부산은행의 미래 신성장 사업인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고객 가치 향상을 위한 영업 현장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각 영업본부별 별도 회의를 실시했다. 부산은행은 올해 경영방침을 ‘딥 이노베이션(Deep Innovation), 새로운 금융의 구현’으로 정하고, 6대 전략 방향으로 경영혁신, 영업혁신, 채널혁신, 내부혁신, 금융공공성 혁신, 그룹시너지 혁신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빈대인 은행장은 CEO특강에서 “고객이 금융을 접하는 방식이 비대면화 되고, 은행간 경쟁으로 금리 등이 평준화됨에 따라 가격 요소가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고객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기분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썸뱅크 앱에서 원스톱 메디컬서비스 제공

부산은행은 1월 29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및 레몬헬스케어와 ‘의료·금융 융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부산대학교병원은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썸뱅크 앱 연계 의료서비스를 홍보할 계획이며, 레몬헬스케어는 썸뱅크 앱과 부산대학교병원 모바일 앱 연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은행은 이날 협약과 함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썸패스 메디컬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30일부터 썸뱅크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부산대병원의 진료예약, 진료내역 및 검사결과 실시간 확인, 진료비 결제 등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항만 수출입 물류 사업 활성화 추진

부산은행은 1월 16일 본점에서 항만 수출입 물류서비스 전문기업인 (주)케이엘넷, 블록체인 자문그룹인 (사)한국블록체인학회와 ‘블록체인 기반 항만 수출입 물류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주)케이엘넷의 첨단물류기술을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해 수출입 물류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입 물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눔 실천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특별성금 전달

부산은행이 이웃과의 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울산·경남 지사에 총 6천만 원의 특별성금을 전달한다. 부산은행은 1월 28일 본점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천만 원의 특별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또, 경남지사와 울산지사에도 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의 특별성금을 2월 중 전달한다. BNK금융그룹은 올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총 9개의 계열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부산·울산·경남지사에 총 1억 1천만 원의 특별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BNK핀테크랩 1기 출범!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가속

부산은행은 1월 16일 문현동에 위치한 위워크BIFC점에서 부산지역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BNK핀테크랩 1기’ 출범식을 가졌다. BNK핀테크랩 1기로 선발된 기업은 총 10곳으로 GMC LABS/ (주)UPCHAIN/ (주)체인어스(블록체인), (주)인슈로보(보험), (주)더재무컨설팅(자산관리), (주)바름(금융데이터), 와이플라리스(무인점포 결제), (주)AI 플랫폼(흉채 인증), 잔다(클라우드 결제), 애자일소다(금융관련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로 전문 멘토링, 네트워킹 이벤트, 사업 확장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BNK 금융그룹



해외점포장들과 함께 글로벌 역량 강화 의지 다져

BNK금융그룹이 1월 1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BNK그룹 글로벌부문 해외점포장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그룹 및 계열사 경영진과 중국, 베트남,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카자흐스탄의 부산은행, BNK캐피탈 해외점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매금융 및 디지털금융 기반 현지화'를 중장기 전략으로 발표하고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신흥시장 개척, 네트워크 확대, 경영지표 개선 등을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 행복한 설 명절 위해 6억 5천만 원 지원

BNK금융그룹이 지역 소외계층의 행복한 명절나기를 돋기 위해 총 6억 5천만 원 상당의 '2020 설맞이 나눔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부산은행이 1월 13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소외계층과의 나눔을 위해 4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부산은행은 김해와 양산지역에도 각 2천 5백만 원씩 총 4억 5천만 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했으며, 경남은행도 경남지역에 1억 4천만 원, 울산지역에 6천만 원 등 총 2억 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원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기부한 전통시장 상품권은 지역의 홀몸 어르신, 쪽방 거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1만3천 세대에 전달되어 설 차례상 차림 등에 사용된다.

BNK 경남은행



2020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BNK경남은행은 1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vens홀에서 '2020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황운철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과 부점장 230여명은 '아듀 2019', '제구포신', '위풍당당 BNK경남은행' 등 3개 섹션으로 나뉜 일정에 동참해 2019년을 돌아보고 2020년 경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포문을 연 아듀 2019 섹션은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귀감이 된 직원 시상과 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의 특강이 마련됐으며, 제구포신 섹션에서는 (주)우아한 형제들 한명수 상무 초청 특강과 주요 부문 영업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 위풍당당 BNK경남은행 섹션에서는 황운철 은행장의 특강과 함께 2020비전을 선포해 눈길을 끌었다.

BNK 캐피탈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실시

BNK캐피탈은 1월 18일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부산지점, 부산소매지점, 소매심사팀 직원 총 18명이 참여해 노인복지관 급식지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BNK캐피탈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BNK 투자증권



선물포장 및 장애우 돌봄 봉사 가져

BNK투자증권은 2020년 1월 18일 부산진구장애인노인복지관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부울경봉사단 10명이 참석해 나눔선물 포장과 장애학생 돌봄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울경봉사단은 40여 명의 부울경 지역 근무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실시중이다.

BNK 신용정보



설 명절맞이 나눔행사로 이웃사랑 실천

BNK신용정보가 1월 20일 범일동 본사에서 '행복한 희망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2016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진행하며 지역 취약 계층과의 나눔 실천을 위해 총 11종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담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BNK신용정보 임직원들은 '희망나눔 꾸러미' 50상자를 손수 제작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고객의 가정에 전달했다.

BNK 시스템



2019년 일하기 좋은 SW전문기업 최우수상 수상

BNK시스템은 1월 15일 SW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주관하는 '2019 일하기 좋은 SW 전문기업 시상식'에서 '직원 역량강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BNK시스템은 핵심 인재 육성, 직원의 자발적인 자기개발 활동 지원, IT학사 및 석사 취득과정 지원, 사내 지식 공유 세미나 등 '인재중심' 경영원칙을 가지고 인적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SW SC 위원장상(한국SW협회장상)에 해당하는 '직원 역량강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

새해 다짐으로 가득했던 1월이 지나고 어느덧 찾아온 2월. 굳게 세웠던 목표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문화생활을 통해 의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 보면 어떨까.



김나은 님(진례지점)

금연은 기본, 재미까지 더한 '담뱃값 적금'이 유익해 보이네요. 금연도 하고 금리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9년 금연했던 신랑이 다시 피우고 있는데, 상품을 보여주고 동기부여를 주고 싶네요.



김진복 님(창원지점)

'경매를 보면 미술이 보인다'에서 미술과 경매의 관련성을 재미있게 읽었고 트렌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환기 화백처럼 세계에 우리 미술의 우수함이 인정받는 사례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원 님(대대포지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똑똑한 재테크가 유익했습니다. 특히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좋은 상품인 것 같네요. 제 주변에 아는 청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고 싶어요.



하필혜 님(명장동지점)

행복이 넘치는 세계의 장수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소박하지만 성실히 살아가는 삶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시니어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2020.03 MARCH 퇴직행우 소식

골프동우회

정기모임_매월 셋째 주 월요일
장소_ 통도 파인아트 C.C.

회장_ 박태민 010-6554-7474 총무_ 서석술 010-5355-6304

동우산악회

3월 정기산행(매주 목요일) / 5일, 12일, 19일, 26일
회장(총무)_곽인섭 010-9943-8871

바둑동우회

3월 정기모임(매월 첫 화요일)_ 3일
3월 임의모임(매주 수요일)_ 4일, 11일, 18일, 25일
장소_ 부산은행 동우회 사무실 회장_ 이성호 010-3858-8483 총무_ 박정호 010-8509-9693

다니엘 보이드 : 항명하는 광휘



2019. 12. 13. ~ 2020. 02. 29.
국제갤러리 부산점

다니엘 보이드의 국내 첫 개인전이 열렸다. 그는 호주 원주민 출신 작가로서 2014년 불가리 미술상을 받았다. 그의 그림에는 대부분 흰 점들이 찍혀있는데, 이는 호주 원주민의 전통회화 기법을 따른 것이다. 보이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유럽의 관점에서 해석된 호주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 호주 원주민들의 삶을 향한 그의 시각이 궁금하다면 국제갤러리로 나서보자.

케니 지(Kenny G) 월드투어 발렌타인 콘서트



2020. 02. 23.
벡스코 오디토리움

세계 3대 색소폰 연주자인 케니 지가 부산을 찾는다. 제36회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연주 작곡상을 받은 그는 '송 버드(Songbird)', '러빙 유(Loving You)' 등의 명곡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최근 <Use This Gospel>을 발매하며 다시금 색소폰 연주자로서의 영향력을 입증한 케니지. 2월 23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의 감미로운 연주가 시작된다.

나는 독립군이 아니다



2020. 02. 26. ~ 2020. 03. 08.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부산 청년 연출가의 뮤지컬이 막을 올린다. 2019년 부산문화재단 청년연출가 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 최우식은 1918년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출판사에 취직한 이후, 세 사람을 만나 독립운동 모임을 조직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고민하던 소시민의 애환이 공연장 가득히 울려 퍼진다.

코믹 연극 오백에 삼십



2020. 02. 22. ~ 2020. 02. 23.
김해시부문화센터 하늬홀

개성 만점 코믹 연극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짜리 원룸에서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는 대지 빌라 사람들. 인생에 허덕이는 허더, 뻔질거리는 고시생 배변, 백치미 흐르는 공주병 환자 미스 조 등 현실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친밀 일상 속 웃음이 필요한 당신에게 적극 추천!